

청각적 사고의 인식원리와 특징에 관한 고찰*

임현식**

박은경***

논문초록

이 논문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토대가 '시각적 인식'에 편향되어 형성되어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서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보는 것은 곧 아는 것이었기에, 형이상학을 탐구하는 철학이나 합리주의적 방법론을 따르는 과학 모두는 시각적 판단을 토대로 대상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정보처리능력에 관한 시각의 탁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각적 인식에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시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실재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 또한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토대는 시각적 인식원리 하나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모든 감각들이 하나로 통합된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시각과 청각의 인식원리가 보이는 차별성은 무엇이며, 시각적 사고와 구별되는 청각적 사고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찰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한다.

주제어 : 청각적 인식, 청각적 사고, 시각적 인식, 시각적 사고

* 이 논문은 기독교학문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5월 24일, 고신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음악학과 출강

***교신저자. 백석대학교 부교수

2015년 3월 27일 접수, 5월 13일 최종수정, 5월 16일 게재확정

1. 서론

서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보는 것은 곧 아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C.)로부터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존재의 파악은 시각적 현상, 즉 빛 속에 나타나는 것(what appears in light)에 대한 연구였으며, 플라톤(Plato, 424/423~348/347 B.C.)부터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에 이르기까지 사물의 형상(eidos)은 본질을 발견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Smith, 1989: 9).¹⁾ 이러한 전통 속에서 형이상학을 탐구하는 철학이나 합리주의적 방법론을 따르는 과학은 모두 시각적 판단을 토대로 대상을 탐구하여 왔다. 정보처리능력에 관한 ‘시각의 탁월성’(서우석, 2010: 머리말)²⁾은 시각적 사고의 정당성을 담보해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시각적 인식원리는 대상이나 사건에 관한 이해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혹은 유일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결과 청각적 사고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음악에 관한 이해까지도 시각적 지각방식과 주지주의의 전통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시각예술로부터 거의 전적으로 그 구조와 용어를 차용해왔다(서우석, 1989: 138).³⁾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각적 인식원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고, 시각적 판단에 근거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처리능력에 관한 시각의 탁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각적 인식에

1) 독일어의 학문이란 뜻의 단어는 비센샤프트(Wissenschaft)인데 여기서의 비센(Wissen)은 영어의 비전(vision)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로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의 에이테나이(eidenai)와 같은 어원을 가진 ‘안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곧 보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2)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85%가 시각에 관련된 것이고, 청각이 10%, 나머지 후각, 미각, 촉각을 합쳐서 5%정도이다.

3) 스미스에 따르면, 음악학이 무지크-비센샤프트(Musik-Wissenschaft)라는 용어로 명명되는 것도 음악에 대한 이해가 시각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연구에서 음악의 형식과 내용은 시각적(visual) 은유와 시각(sight) 언어를 차용하여 그릇과 담겨진 물질로 비유되었다. 예컨대 소나타 형식을 A-B-A로서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악보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수직적 차이가 있게 표시함으로써 시각적 비유를 사용한다. 오선보의 모든 음높이는 수직적 거리로 표기되고, 우리의 의식 내에서 그렇게 지각하기를 강요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서우석, 『음악현상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38, 225를 참조하라.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토대는 청각을 비롯한 다른 모든 감각들이 하나로 통합된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는 시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재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또한, 다른 감각들을 통해 얻게 되는 인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과 오해를 야기하는 시각적 사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시각과 청각의 인식원리가 보이는 차별성은 무엇이며, 시각적 사고와 구별되는 청각적 사고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찰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한다.

II. 시각과 청각의 인식원리

청각적 사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의 인식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시각적 사고이기 때문에 청각의 인식원리나 사고과정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설고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감각이 동일한 인식원리 안에서 작동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시각적 인식원리를 청각적 인식과정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⁴⁾ 이러하기에, 청각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각과 청각의 인식원리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시각의 인식원리

형태주의 심리학⁵⁾에서는 시각적 인식원리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4) 음악심리학에서도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각적 인식원리 등을 적용하여 음악의 지각방식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이석원, 2000: 121-140).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음의 지각을 물리적 현상으로만 설명하려는 심리음향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는 있을지라도 청각적 사고에 관한 오해와 불합리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5) 형태주의 심리학은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 1880-1943)가 "인간은 고립된 자극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형태(Gestalt), 즉 모여진 자극을 본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태동되었으며,

인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이석원, 2000: 119-139).

"①근접의 원리(Principle of Proximity): 지각방식에 있어 가까이 근접해 있는 것들끼리 모으고자 하는 원리로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 개념에 관한 인간의 심성을 체계화한 것이다. ②유사성의 원리(Principle of Similarity): 서로 모양이나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자 하는 심성을 이론화한 것으로서, 시각은 같은 모양끼리 뿐만 아니라 같은 색도 함께 모아서 본다든 원리이다. ③계속성의 원리(Principle of Continuity): 잉태의 원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룰 때 그 선은 이미 '점들의 합' 이상이 되어 방향성을 갖게 되고 선의 양 끝이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갈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원리이다. 선행사건은 이미 후행사건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④완성의 원리(Principle of Fill): 폐쇄성의 원리로 이해되기도 하며, 공백(gap)을 충족(fill)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근거를 둔 원리이다".

이 밖에도 시각은 보이는 두 물체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망막에 맺혀진 영상의 크기가 작을수록 멀리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한 물체가 다른 것을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으면 가려진 것이 더 멀리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또한 윤곽이 뚜렷한 물체보다는 윤곽이 흐린 것이 더 멀리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영성하고 구별되는 밀도가 점진적으로 작고 구별 안 되는 결(texture)의 밀도로 변화되면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⁶⁾ 이러한 시각의 인식원리들은 사물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시각의 인식원리를 유일하거나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켈러(W. Köhler, 1887-1967)와 코프카(K. Koffka, 1886-1941)가 발전시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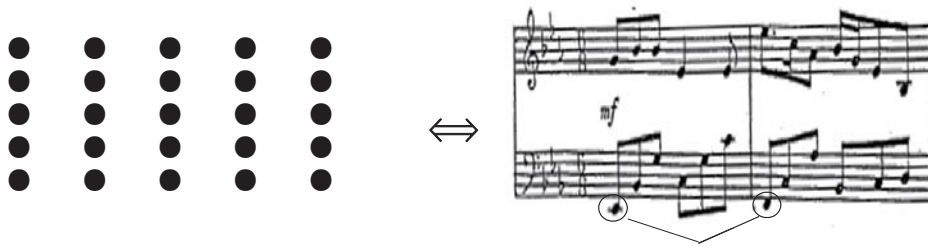
6) 시각은 시야에서 위쪽에 있는 대상을 더 멀리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응시점보다 가까운 물체는 뒤로, 응시점보다 먼 물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지각된다. 이때 가까이 있는 물체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멀리 있는 대상들은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차의 선로와 같은 평행한 선들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한 점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 선들이 가깝게 모일수록 거리는 더 먼 것으로 지각되며, 기차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가까이 있는 대상은 더 많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흐린 것이 더 멀리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추정된 광원과 일치하는 그림자는 깊이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149-155를 참조하라.

안 된다. 시각적 판단을 토대로 현실을 지각하는 것은 세계를 인식하는 다양한 방식중의 하나일 뿐이다. 청각을 비롯한 다른 모든 감각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 원리는 시각의 원리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각각의 감각기관들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청각의 인식원리도 시각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빛의 세계에서는 시각의 기능이 발휘되지만 어둠 속에서 그 기능은 정지되고 청각이 그 본유의 기능을 시작한다. 시각은 “형(形, figure)과 지(地, fond)”(Merleau-Ponty, 2002: 38)의 분리를 통해 시각적 대상의 관계를 인식하는 반면,⁷⁾ 청각은 소리의 진동(vibration)을 통해 청각적 대상들의 관계를 인식한다. 각각의 감각들은 본유적인 지각방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분명한 자기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각의 원리를 청각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지금부터는 시각에 대비되는 청각의 인식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근접의 원리에 대한 청각적 반론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 것들끼리 모아 보고자하는 근접의 원리는 청각적 인식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각은 절대적으로 균등한 시간과 거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근접해 있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판단하지만 청각은 이것들에 대하여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각적으로는 더 멀리 위치해 있을지라도 내적관계의 측면에서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낯선 사람을 사이에 두고 아들과 어머니가 떨어져 앉아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시각적으로는 낯선 사람과 아들이 더 가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들과 어머니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각적 인식에 있어서 직선상에 표시된 한 점(소리)이 그 이전에 나타난 두 개의 점(소리)과 맺는 관계는 눈에 보이는 직선상의 거리에 의해서 비유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서우석, 1989: 153).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음악가들은 시각적으로 기호화된 악보를 근접의 원리로 이해하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7) 지각적 경험에서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장면인 전경을 '형'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배후의 장면인 배경을 '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형태심리학이 말하는 유명한 지각의 두 구조이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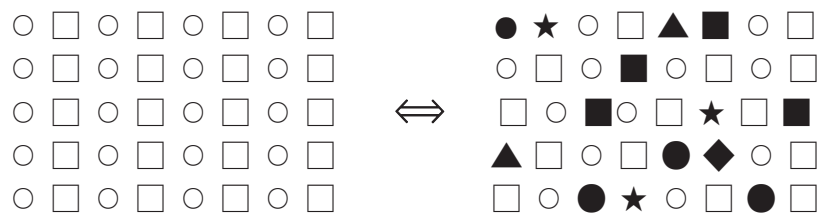
위의 왼쪽 그림은 근접성의 원리가 사람들의 인식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그러나 근접성의 원리는 시각에서만 통용될 수 있을 뿐이다.⁸⁾ 음악가들은 위의 악보에서 베이스의 Eb음은 같은 마디 안에 있는 다른 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다음 마디의 F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파악한다. 음악에 있어서 현재 귀에 들리는 음은 바로 직전에 들린 음과 관련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들린 음, 또는 아직 들리지 않은 더 멀리 있는 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일상의 대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에서 ‘나’, ‘당신’, ‘사랑’ 등의 단어는 시각적으로 더 가까이에 있는 ‘는’, ‘을’, ‘합니다’라는 조사들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소리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시각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만 관계를 파악하고 소리를 낸다면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적절하게 표현될 수 없을 것이다.

3. 유사성의 원리에 대한 청각적 반론

유사성의 원리도 청각적 인식과정에서는 다르게 이해된다. 시각은 같은 모양이나 색상이나 특성끼리 함께 모아서 관련시키지만 청각에서의 유사성은 시각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파악될 수 없다. 청각의 토대가 되는 소리는 어떠한 시각적 형태도 갖지 않

8)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근접의 원리는 시각에서조차 전적으로 일반화될 수 없는 원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위의 그림에서 가로로 의미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접성의 원리는 원근법이 그러하듯이 선형적으로 주어진 감각원리라기보다는 관습화된 하나의 보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같은 대상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주목’(selective attention)으로 설명한다. 즉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한 순간에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139-142를 참조하라.

기 때문이다. 청각은 대상의 형태를 지각한다기보다는 오직 진동하는 소리에 내포되어 있는 움직임의 유사성을 파악한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의 유사성이란 음악의 동기나 주제와 같은 음들의 조합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운동의 특성과 관련된다. 소리에서 감지되는 운동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최소한 시각과 청각이 파악하는 유사성이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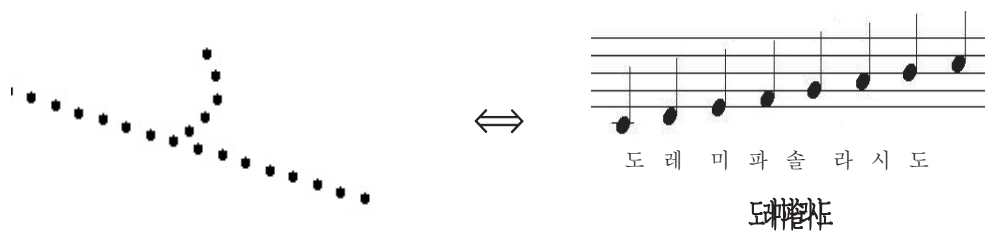
[그림 2]

위의 왼쪽 그림은 유사한 형태들끼리 더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각은 형태나 색이나 대상의 위치에 상관없이 소리에서 경험되는 긴장감이나 움직임의 특성에 따라 관계성을 감지한다. 위의 오른쪽 그림에서 검게 표시된 부분들이 유사한 운동감을 가진 소리들이라면, 이것들은 시각적인 형태나 거리에 상관없이 더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림 1]의 악보를 실제로 연주함에 있어, 각각의 음들은 연주되는 방식에 따라 관련성의 유무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마치 야구 경기에서 배팅의 순간에 들리는 소리와 가장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타구와 수비수의 움직임에서 감지되는 동일한 긴장감이나 운동속도를 통해 파악되는 것과 같다. 하나의 타구는 수비수들의 생김새나 정해진 위치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수비수의 순간적인 움직임과 더 필연적인 관계를 맺을 뿐이다.

4. 계속성(잉태)의 원리에 대한 청각적 반론

잉태의 원리는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룰 때 선의 양 끝이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갈 것

인지 알 수 있다는 원리이지만 청각적 인식의 재료가 되는 소리는 특정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버드(Malcolm Budd, 1941-)의 주장과 같이 음악에서 음들이 변한다는 것은 시각적 의미에서의 물리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음이 높낮이에 있어서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Budd, 2003: 209-223).⁹⁾ 사람들은 음계를 한 음이 높게 혹은 낮게 움직이는 것으로 지각하지만 이것은 시각적 판단에서 비롯된 오해다. 아래의 그림은 이것을 보여준다.



[그림 3]

위의 왼쪽 그림은 연속되는 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악보를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왼쪽의 악보에서 음들이 우측으로, 그리고 동시에 위쪽으로 위치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듣는 소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울리는 하나하나의 음을 듣고 있을 뿐이다. 각각의 ‘음이 갖는 높낮이’¹⁰⁾에 대한 판단은 진동수의 증감과 관련될 뿐 음 자체가 물리적 위치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진동체에 작용하는 장력(긴장감)의 증감과 관련될 뿐이다. 진동체의 긴장도는 음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진동 폭의 증감에 따라 진동체의 장력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음량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청각적 입장에서 보는 잉태(계속성)의 원리는 시각

9) 버드는 선율의 움직임은 그것을 구성하는 상이한 음높이를 가진 음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음들 사이의 관계들은 음높이 연속체 상에서 그들이 갖는 자리들의 문제일 뿐 음높이 연속체 그 자체는 공간적 차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0) 음의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 또한 시각적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높낮이’라는 용어로 순수한 청각적 지각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대신할만한 청각적 용어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다양한 청각적 용어들이 보편화된다면 눈에 보이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사뭇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적 방향이라는 관점에서보다는 필연적인 긴장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상, 음악의 연주에 있어서 긴장과 이완의 상호작용은 음악의 진행과 도달, 집중과 해방이라는 정신적 움직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때의 음악적 인식은 소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움직임의 긴장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 어떤 시각적 방향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5. 완성의 원리에 대한 청각적 반론

공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완성의 원리는 선의 양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는 잉태의 원리와 관련된다. 아래의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시각은 방향을 가진 선의 빈 공간을 연결시켜 인식함으로써 완성된 전체(중앙의 큰 삼각형)를 파악한다.



[그림 4]

그러나 청각적 인식은 어떤 방향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청각에서의 완성된 감각이란 필연적인 긴장감이나 유기적인 운동감과 관련하여 판단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위의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사, 랑, 해, 요’라는 각각의 글자가 완성된 하나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각의 발음은 반드시 중첩되고 융합되어야 한다. 시각적으로는 독립적인 부분들이 모인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청각에서는 상호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이 중첩하고 융합함으로써 유기적인 전체를 이룬다.¹¹⁾ 청각적 경험에 있어서는 선 안에 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점 안에 선이 있을

11) 시각적인 의미에서의 중첩은 각각의 대상을 직선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글자들은 중첩되거나 융합될 수 없다. 그러나 청각에서의 중첩과 융합은 시각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점, 선, 면의 3차원을 넘어 보이지 않는 시간과 입체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4차원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도 있다. 청각적 인식에 있어서는 부분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부분이 있는 과정 속에서 완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각각의 음들이 중첩되거나 융합되지 않을 경우 청중들은 이것을 산만하고 의미 없는 소리들의 나열로 지각한다. 청중들은 발음된 소리와 더불어 그 뒤에 묻어나오는 다양한 움직임들 통해 뉘앙스를 파악하고, 소리들이 중첩되고 융합될 때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통해 음들의 관계를 이해한다.

Ⅲ. 시각적 사고와 청각적 사고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은 시각과 다른 인식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청각적 인식을 토대로 한 사고방식은 시각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청각적 사고의 의미나 가치는 적극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일차적인 이유는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감각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시각이기 때문이며, 이차적으로는 오직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믿음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감 중에서 시각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한 시각 편향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렇다면 시각적 사고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것은 청각적 사고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지금부터는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이다.

1. 시각적 사고의 특징

여기에서 말하는 시각적 사고란 시각의 인식원리에 따른 판단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시각적 판단에 따라 사고할 때, 사람들은 고정감이나 안정감을 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각은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상의 움직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각적 지각은 불가능해지며, 대상을 정지시켜 놓고 관찰할 때 비로소 시각의 인식능력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시각적 지각을 필요로 하는 매체들, 즉 문자, 그림, 악보 등과 같이 정지되어 있는 매체는 물론이고 움직임은 다루는 영상매체까지도 정지 상태를 지향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을 더욱

느리게, 혹은 정지된 상태로 연출하는 이유도 바로 시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움직이는 대상에게는 시선을 고정시킬 수 없고,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면 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시각은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각은 그 본성상 정지(안정)지향적이다.

물론 시각도 대상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미 있는 해석을 부여하기 때문에 변화(움직임) 지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움직임을 지각하고자 할 때, 즉 “시간의 흐름을 통해 다른 개별자(the individual)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개별자를 지각”(Davies, 1994: 230)하고자 할 때,¹²⁾ 시각이 대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경이나 배경 중 하나는 정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시각은 결국 변화보다는 안정 지향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인식의 특징은 청각적 경험에서 찾을 수 없는 특성인 견고성, 명확성, 객관성을 지향하게 하고 안정감과 확실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뿌리가 된다 (Bowman, 2011: 419). 서양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플라톤의 사상이 변하지 않는 진리나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도 시각이 고정감이나 안정감을 지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가 이데아의 세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 즉 불변하는 형상, 원형, 객관 등은 분명히 시각적 은유나 추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가 인간의 감각영역에 속해 있는 시각을 열등한 것으로 치부한 것은 분명하지만(Bowman, 2011: 38-52),¹³⁾ 그의 사고방식은 시각적 판단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중심적 사고는 고대 그리스의 보편적인 인식방식이었다. 고대 그리스인

12) 시각적으로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배경(背景)이 되는 주변으로부터 전경(前景)이 되는 대상을 분리해 내는 것이다. 예컨대 독서를 할 때 글자들은 전경이 되고 흰 종이는 배경이 되는데, 시각은 전경이 되는 글자들을 조합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배경으로부터 전경의 위치가 바뀔 때 시각은 그것을 움직임으로 인식한다. 영화를 볼 때처럼 초당 24장의 필름을 연속해서 보여주면 대뇌는 그것을 움직임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을 스트로보스코픽 운동(stroboscopic movement)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151을 참조하라.

13) 플라톤에게 있어서 실재는 본질적으로 이중적인데, 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는 세계이다. 그는 보이는 세계에서의 시각적 지각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긴다. 보이는 세계의 감각에 주어진 지식은 순간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념이나 보편자보다 뚜렷하게 하위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감각이 사람을 기만할 수 있고 사실 종종 기만하는 것으로 보았다.

들의 눈에 비친 세계는 거북이 등처럼 평평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거북이 배에 해당하는 반대편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계를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써, 시각적 판단을 토대로 한 사고가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지배적인 인식방식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 중심적 인식은 실제적인 자연의 원리를 오해하게 함으로서 천동설과 같은 비합리적인 믿음을 낳기도 했다. 이태호에 따르면,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시각적 판단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거대한 자, 즉 신(神)의 시각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세 이후,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에 대한 믿음이 약화됨에 따라 신의 시각은 객관(客觀)이라는 인간일반의 시각으로 대체되었다(이태호, 2001: 6-20).¹⁴⁾ 시각적 판단의 주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갔지만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¹⁵⁾ 오늘날에 이르러 시각적 판단은 과학적 사고의 토대로 자리하고 있으며, 합리성의 기준 또한 시각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맥루언(M. McLuhan, 1911-1980)은, 서양의 합리성은 원인과 결과를 추적함에 있어 논리적,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실상은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논증으로 이루어지는 시각적인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다(이윤진, 2002: 19).¹⁶⁾ 그의 비판에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진정한 합리성은 비약 없는 논리를 필요로 하며 논리의 비약이 없기 위해서는 대상을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14) 이태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믿음이 객관이라는 인간일반의 시각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밝히며, 오늘날의 사람들이 객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뿌리 깊은 절대성의 타과과정을 밝히기 위해 시도된 것이지만 시각 중심적 세계 이해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호, “A. N. Whitehead의 상대성 원리와 범주도식,”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1), 6-20을 참조하라.

15) 시각적 판단을 인식의 토대로 삼았던 사고방식은 전통적으로 객관적,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오히려 과학의 발전은 이것을 붕괴시켰다. 시각적 판단을 토대로 한 공간방향의 절대성, 공간위치의 절대성,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 등이 붕괴되는 과정은 팡리지·추 야오환, 『뉴턴의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까지』, 이정호·하배연 역 (서울: 전파과학사, 1998), 19-29를 참조하라.

16) 맥루언에 의하면 시각의 지각방식은 ‘선형적 인과관계의 파악’으로 귀결된다. 즉 시각을 통해 얻어진 개별적 지식을 직선 위의 한 점으로 생각하고 각각의 연속되는 점들과의 인과관계를 개념화함으로써 대상과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선형적 인과관계란 종래에 있어왔던 합리적 사고방식의 인식론적 편향성을 의미한다.

시각은 항상 직선으로 뻗어나가면서도 직선상의 시선 속에 들어온 대상을 꿰뚫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각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¹⁷⁾ 시각은 그저 대상의 표면을 순차적으로 취사선택하여 파악하고, 그것들의 인과관계를 연속적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으로 인식에 도달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따른 연속적 논증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시각적이라는 지적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합리성의 기준을 시각적 판단에서 찾는다. 시각적 인식에 따른 판단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예컨대 원근법의 경우, 사람들은 원근법을 통해 자연을 그대로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기 위해 다른 것을 배제시키는 방식에 의한 것이다. 원근법은 사물들의 배열을 하나의 시점을 중심으로 배열시키고 왜곡시킴으로써 이차원의 평면 위에 삼차원적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시점에 의해 현실을 지각하도록 대중일반을 유도한다(이윤진, 2002: 20).¹⁸⁾

이처럼 시각적 사고가 유일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리성을 갖는 것도 아니라면, 청각적 사고와 같은 다른 관점의 사고방식에 관하여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시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결코 시각적 공간에서의 변화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타 감각의 인식과정에 대한 오해와 불합리를 야기할 뿐이

17) 이 때문에 ‘중첩’이라는 말은 시각과 청각적 인식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는 사뭇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수채화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색을 중첩시키면 각각의 색이 사라지고 또 다른 색이 감각된다. 그리고 중첩을 계속하면 중국에는 검은색으로 귀결됨으로써 결국 다른 어떤 색도 지각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미술에서의 중첩은 투명도에 따른 시각적 인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색의 혼합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에서는 소리를 중첩하여도 단일한 어떤 음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각각의 소리가 가진 특징이 사라지지 않고 서로에게 투영될 뿐이다. 그래서 미묘한 하모니의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다양한 악기들의 음색을 동시에 들을 수도 있다. 각각의 음들은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융합한다. 소리는 둘 이상이 거듭해서 겹쳐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섞이거나 조화되어 하나로 합쳐진 것과 같은 전체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다.

18) 원근법에 의해 삼차원적 공간을 표현하게 된 것은 미술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며 근대적 재현 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지만, 원근법은 현실과 실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같지 않다. 즉, 원근법은 자연 자체를 그려낸다고보다는 현실적이라고 지각하는 하나의 보는 방식일 뿐이다.

다. 그러므로 실재에 대한 보다 균형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각 지향성과 그 어휘에서 벗어나 청각적 사건으로서의 지각경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 청각적 사고의 특징

여기에서 말하는 청각적 사고란 청각적 인식원리에 따른 판단에 의해 형성된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 청각적 사고는 시각적 사고가 정지(안정) 지향적인 것과는 반대로 움직임(변화) 지향적이다. 움직임(변화) 없이는 소리가 날 수 없으며, 소리가 없이는 청각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움직임이 느리면 느릴수록 더 약한 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신경을 자극하는 ‘역치’(閾值)¹⁹⁾에 도달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청각적 지각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청각적 지각을 필요로 하는 매체들은 항상 움직임을 지향한다. 사람들이 말이나 음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 그 배후의 움직임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청각적으로 가장 분명한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시각과 달리 청각은 움직이는 배경 속에서 움직이는 전경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청각적 지각을 위한 배경도, 전경도 될 수 없다.²⁰⁾ 그래서 청각은 그 본성상 움직임(변화)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움직임(변화) 지향적인 청각적 인식의 특징은 움직임이나 변화에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청각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청각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시각적 사고로부터 파생된 기존의 선입견들을 재고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각적으로는 정지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청각적으로는 움직임의 결과물일 뿐이다. 시각이 전경과 배경 사이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정지라고 인식할 때, 청

19) 역치(threshold value)란 감각이 일어나는 데 꼭 필요한 최소의 자극의 세기를 가리킨다. 역치 이상의 세기를 가진 자극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감각이 생긴다. 청각에서의 절대역치는 다른 소리가 없을 때 어떤 소리를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레벨을 의미하며, 최소가청음압과 최소가청음장 모두 매우 높거나 낮은 주파수에서는 역치가 가파르게 증가한다. 대부분의 실제상황에서 미약한 소리에 대한 감지는 절대역치보다는 환경잡음의 특성(포함하고 있는 주파수, 레벨의 정도, 나타나는 빈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해는 Brian C. J. Moore, 『청각심리학』, 최인용·최낙진 공역 (서울: 학지사, 2011), 84-94를 참조하라.

20) 오케스트라와 독주자의 협연 무대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은 그것을 유지하는데 작용하는 움직임이 실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즉, 청각적 사고에서 정지의 의미는 단순히 ‘움직임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 정지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역동적 정지란 ‘역동의 과정을 통해 정지를 유지하는 것’이며, ‘정지 속에 역동의 과정이 내재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발레리나의 푸앵트(pointe, 한쪽 발끝으로 서서 균형을 잡는 자세)가 실제로는 온 몸의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가 앞에 서 있는 모델이 화가에게 정지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몸의 근육들을 조절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또한 고도로 훈련된 체조선수가 공중회전 묘기를 한 후 착지하는 순간에 균형을 잡기 위해 온 몸의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과도 같다. 이때의 체조선수는 정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근육의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정지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 음악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음높이는 내재적인 역동적 정지의 과정, 즉 지속적인 흔들림을 통해서 유지된다.²¹⁾ 흔들림의 특징을 갖지 않는 움직임은 소리로 인식될 수 있을지언정 음으로 지각되기 어렵고, 내재적 흔들림을 통해 유지되는 음이라도 시각적 방향으로 움직일 때 변화된 것으로 들린다.²²⁾

시각적 판단에서의 정지 상태를 ‘역동적 정지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청각적 사고방식은 물리적으로 정지해 있는 대상을 움직이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예컨대, 시각적 사고에 있어서 정지해 있는 대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그 대상에 힘을 가하여 밀거나 당기는 것이다. 시각에 있어 정지해 있는 대상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가진 어떤 힘이 외부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각적 사고에 있어서 그 대상은 내적인 역동적 정지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에 가해져 있는 힘을 놓아주거나 풀어줌으로써 그 대상을 움직이려고 한다. 이것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보았을

21) 흔들림은 음악적 아름다움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귀에 들리는 흔들림을 ‘소리’라 할 수 있고, 들리지 않는 흔들림을 ‘여운’이라 할 수 있으며, 전달된 흔들림을 ‘감동’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임현식, “흔들림의 미학적 가치에 관한 고찰,” 『기독교 철학 17호』 (과주: 한국학술정보출판사, 2013), 71-95를 참고하라. 시각은 전경과 배경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지각하지만 청각은 내재적 관계의 움직임을 토대로 변화를 인식하기 때문에 두 사고방식은 변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상이함을 보인다.

22) 도플러 효과는 이것을 증명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논자의 박사학위논문 61-62를 참조하라.

때 정지해 있는 한 사람을 움직이려면 우리는 그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밀거나 당겨야 한다. 그러나 마치 줄다리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두 팔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때 그 사람의 움직임은 밀거나 당겼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²³⁾ 이 실험은 정지를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파악하는 시각적 사고와 내적인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청각적 사고가 전혀 다른 출발점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⁴⁾

안정적인 정지 상태가 내적인 역동성을 토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관계 양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일상의 삶 속에서 깊은 우정이나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가고자 할 때,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속적인 변화와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 양상은 각 대상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 간의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움직임의 과정을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우정이나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기대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형성된 관계양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변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는 이유는 “모든 지각은 역동적인 것, 즉 방향을 가진 긴장에 의해서 발생”(Arnheim, 1998: 80)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국 어떤 역동성으로부터 상대방의 의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관계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지속적인 역동성이

23) 음악표현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가 된다. 밀거나 힘을 써서 표현되는 음악과 뇌주거나 힘을 빼서 표현되는 음악은 전혀 다른 뉘앙스를 만들어낸다. 이 뿐만 아니라 위의 상황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청각적 사고가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시각적 사고에서의 음정(interval)은 정지해 있는 각각의 두 음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청각적 사고에서는 이미 어떤 관계의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음이 또 다른 관계의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른 음과 제3의 역동적 관계를 맺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음악의 이해뿐만 아니라 기독교신앙은 물론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25)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할 뿐만 아니라 수용하기 어려운 강력한 변화도 거부하지 않는다. 관계가 깊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심리적, 물리적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와 비례한다.

내재해 있어야 한다.

한편, 청각적 사고는 전체적, 그리고 동시적 인식을 토대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듣는 방식의 특성과 연관된다. 즉, 귀에 들려진 목소리는 성대의 움직임인 동시에 온 몸의 근육들과 공명강, 그리고 심리적인 움직임까지도 상호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며, 악기소리는 진동하는 악기와 그것을 진동시키는 연주자의 심리적, 신체적 움직임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대상의 움직임과 변화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인식한다. 버로스(Burrows, 1990: 18-19)에 따르면 “부과된 이미지에 대한 동시적 지각은 시각에서는 예외적 사건이지만 청각에서는 일반적인 규칙”이다.²⁶⁾ 소리를 듣는다는 행위는 소리가 발생하기까지 관여한 모든 움직임들을 동시에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각적 사고는 언제나 대상의 움직임과 변화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청각적 사고의 특징은 오늘날의 문화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시각적 사고는 빛과 어둠,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성 등을 분리시키고, 어둠과 육체와 감성 등을 열등한 것으로 소외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둠은 시각적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육체와 감성은 안정지향성을 갖는 시각적 사고에 불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각적 사고에는 이러한 분리가 없다. 청각은 빛과 어둠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대상을 인식할 수 있으며, 육체와 감성이 갖는 불안정성은 오히려 청각적 존재인식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따라서 청각적 사고는 빛과 어둠,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성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인 실재로 파악함으로써 시각적 사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대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적 사고는 청각적 사고에 의하여 보완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하여 맥루언은 순차적인 절차에 따라 얻어지는 하나의 전망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잡한 전체를 모든 감각을 통한 하나의 이미지로 포착해내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McLuhan, 2008: 556). 그의 주장은 삶과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이 시각 편향성에서 벗어나 통감각적 사유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실체나 본질에 대한 파악은 어느 한 영역에서의 노력으로만 제한될 일이 아니라 빛과 어둠,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성, 그

26) 소리는 대상의 총체적인 움직임과 변화의 과정을 반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청각은 이미 울리고 있는 소리에서 움직임의 일부분이나 단면을 분리해 낼 수 없다.

리고 시각과 청각이 하나로 통합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우리가 세계를 명사로 보고 동사로 듣는다”(Burrows, 1990: 21)는 버로스의 말은 시각과 청각의 지각적 특징을 단언해 주는 것이지만 실체를 파악하는데 양측 모두가 종합되어야 할 필요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세계와 삶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위해서는 모든 감각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통감각적 접근을 통해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과 청각은 본유적으로 서로 다른 인식의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시각적 사고는 정적인 안정감을 토대로 확실한 것,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반면 청각적 사고는 전체적이고 동시적인 인식을 토대로 움직임과 변화에 가치를 둔다.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 상존하는 것들이기에 무엇이 더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오랫동안 시각적 사고에 편향되어 갖게 된 선입견에서 벗어나 청각적 사고방식이 제공하는 역설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은 분명히 끊임 없는 변화의 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는 정지해 있다고 판단되는 것까지도 실제로는 ‘역동적 정지’의 과정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시각적 사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모든 감각이 동시에 참여하는 통감각적 사고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세계와 삶에 관한 이해가 조금 더 풍성하고 온전해지길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서우석 (1989). 『음악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1989). 『음악과 현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10). 『음악을 본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석원 (2000). 『음악심리학』. 서울: 심설당.
- 이종필 (2009). 『신의 입자를 찾아서』. 서울: 마티.
- 한국심리학회 편 (2000). 『현대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이윤진 (2002). “한국 텔레비전 문화의 형성과정.”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이태호 (2001). “A. N. Whitehead의 상대성 원리와 범주도식.”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 임현식 (2012). “연주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음악의 규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대학원.
- _____ (2013). “흔들림의 미학적 가치에 관한 고찰.” 『기독교 철학』. 17. 71-95.
- Budd, M. (2003). "Musical Movement and Aesthetic Metaphors."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3/3.
- Burrows, D. (1990). *Sound, Speech, and Music*,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Davies, S. (1994). *Musical Meaning and Express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mith, F. J. (1989). *Understanding The Musical Experience*. New York: Gordon & Breach.
- Arnheim, R. (1969). *Visual Think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김정오 역 (2004). 『시각적 사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Bowman, D. W. (1998).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us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서원주 역 (2011). 『음악철학』. 서울: 까치글방.
- Fang Lizhi·Chu Yaoquan. (1987). *From Newton's laws to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Singapore: World Scientific. 이정호·하배연 역 (1998). 『뉴턴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까지』. 서울: 전파과학사.
- McLuhan, M. (1969).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임상원 역 (2008).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 Merleau-Ponty, M. (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류의근 역 (2002).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Moore, B. C. J. (2008).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hearing*. Bingley:
Emerald. 최인용·최낙진 역 (2011). 『청각심리학』. 서울: 학지사.

Abstract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Auditory Thinking

Hyun-sik Lim (Baekseok University)

Eun-kyung Park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was inspired by the following question: Our way of thinking is based on our 'visual perce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ditional way of thinking in the Western countries, "Seeing is believing." Thus, all the science-related fields that follow philosophical or rationalistic methodology that explores metaphysics were examined based on visual judgement.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see the world with biased perspectives based on visual perception. It is true even if the excellence of visual perception as to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y is acknowledged. It is because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cannot be perceived visually, which are a big part of this world. Therefore, the basics of people's thinking should not be focused on a single visual perception principle. Rather, all other sense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domain with a balanced approach. In that sens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foll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visual and auditory perception principles; the characteristics of auditory thinking different from visual thinking; another perspective on understanding the world.

Key words: auditory perception, auditory thinking, visual perception, visual thinking